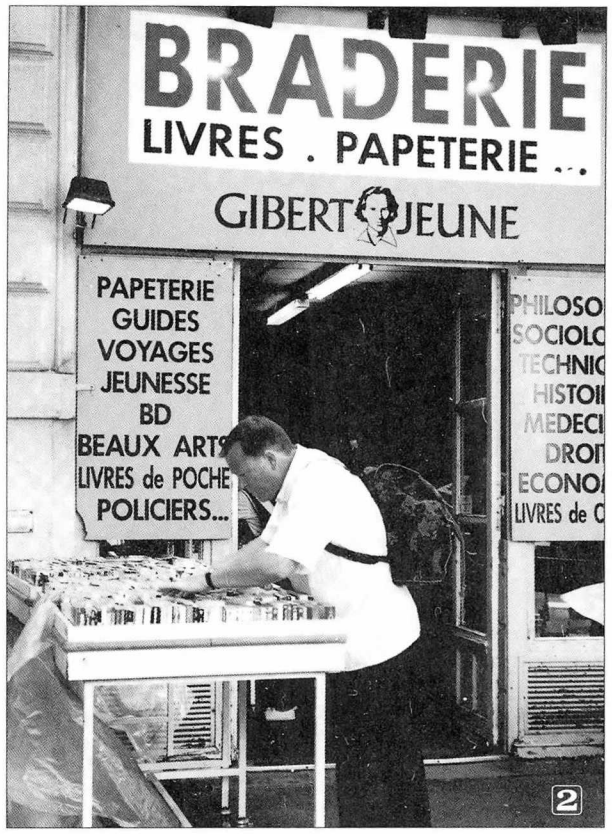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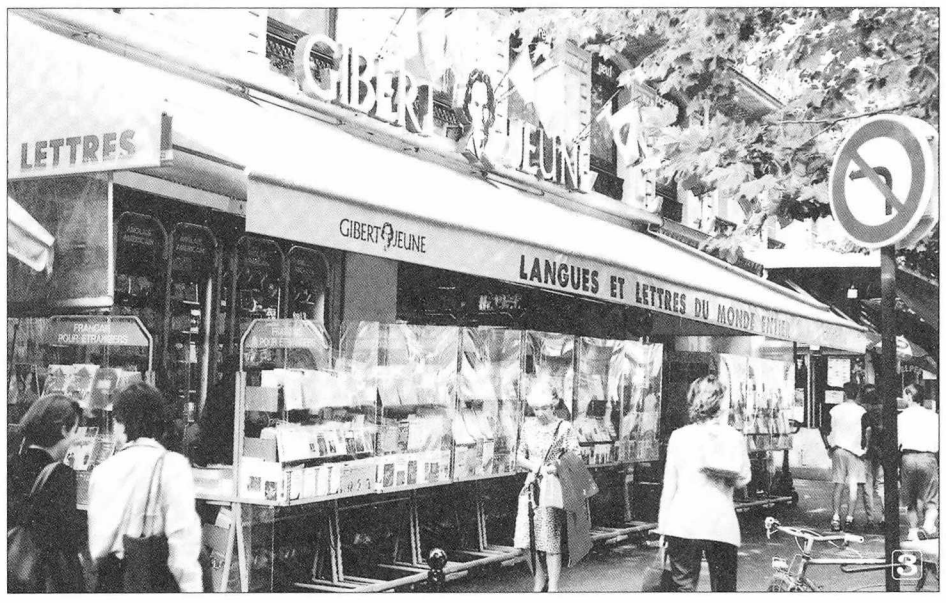
지성과 낭만, 헌책과 새책의 만남

파리 대학가의 노란 책방, 지베르 죈(Gibert Jeune)을 찾아서

최연구
《한겨레 21》 파리통신원





노란 차양이 눈에 띄는 '지베르 죈' 서점은 5개 코너가 각기 다른 건물에 분산돼 있어 책을 찾기 쉽다. 재고도서나 헌책 코너도 따로 있어 싼 가격으로 좋은 책을 살 수 있다.

1 염가판매 코너. 중고책 포켓판 소설은 단돈 6프랑(9백원)에 살 수 있다.
2 재수가 좋으면 염가매장에 쌓인 책 틈에서 좋은 책을 발견할 수 있다.
3 셍 미셸 광장을 끼고 있는 '지베르 죈' 서점은 노란색의 차양이 눈에 확 띈다.

소르본대학, 꼴레주 드 프랑스, 셍 미셸 거리가 있는 지역을 일컬어 '까르티에 라땡(라땡 지역 Quartier latin)'이라 부른다. 굳이 서울과 비교를 하자면 동숭동이나 혜화로쯤에 해당하는 대학가이다. 파리시의 행정 분류상 파리 5,6구에 걸쳐 있는 이 라땡 지역은 또한 사시사철 관광객이 북적대는 관광 코스이기도 하다. 팡테옹 신전이나 룩상부르 공원, 전후 지식인 거리였던 셍 제르망 데 프레 등이 모두 이 근처에 몰려 있다. 그 흔한 유럽 배낭여행을 온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이 일대를 활보하며 파리의 여유있는 낭만과 대학가의 활기찬 분위기에 심취했던 기억을 가졌을 만한 그런 지역이다.

낭만적인 장소에 위치

대학가이기에 책방도 군데군데 눈에 띈다. 소르본대학 앞 광장 귀퉁이에 있는 PUF(대학출판사)도 전통있는 서점이고, 셍 미셸 거리를 따라 몇 발치만 아래로 내려가면 보이는 '지베르 조제프' 서점도 빼놓을 수 없는 대학가의 유명 서점이다. 그 중에서도 노란 차양이 특히 돋보이는 종합서점이 '지베르 죈'이라는 대형서점이다. '지베르 죈' 서점은 세느 강과 강 건너의 노트르담 성당이 마주 보이는 셍 미셸 광장을 끼고 있다.

생 미셸 광장은 그 광장의 한켠에 위치한 셍 미셸 분수로 더 유명하다. 17세기에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셍 미셸 분수는 오늘날 어쩌다가 만남의 장소가 되어버렸는데, 그 분수대 근처에는 약속한 친구를 기다리는 학생, 부둥켜 안고 키스를 나누는 젊은 연인들, 또는 분수대에 걸터앉아 프랑스식 바게트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사람들로 연일 북적댄다. 이 낭만적인 만남의 장소에 지베르 죈 서점이 위치해 있다. 낭만도 낭만이지만 상업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요지에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서점 건물 전면에는 '지베르 죈'이라는 상호와 얼굴이 붙어 있다. 그가 이 서점의 창업자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죈은 성(姓)이지만 불어에서는 '젊은'이라는 뜻이니 서점 이름이 '젊은 지베르'인 셈이다. 대학가의 서점으로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차양이 노란색인 데다가 책가격표도 노란색 딱지로 붙여두었고, 서점의 비닐봉투도 노란색이라 노란색은 지베르 죈 서점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지베르 죈과 경쟁관계에 있는 이웃의 지베르 조제프 서점이 파란색으로 통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노란 서점 지베르 죈은 '어학·외국어' '인문·사회과학' '과학·기술' '교재류' '염가매장' 등 5개 코너로 분류되어 있는데 아예 5개의 다른 건물에 분산되어 있다. 분야별로 찾기 쉽도록 분리되어 있어 서점 이용객들에게는 오히려 편리하고 한군데 모여 있지 않아 번잡함을 피할 수도 있다. 보통 서점의 바깥에는 재고도서 같은 것을 염가로 판매하는 판매대를 내놓는 것이 파리 서점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지베르 죈도 마찬가지다. 염가판매대의 책을 하나하나 뒤지는 사람들의 표정이 꽤나 진지하다.

고풍스런 서가가 인상적

서점 건물은 적어도 2백년은 넘었음직한 튼튼한 석조 건물이다. 거무튀튀한 건물색이나 건물외벽의 구석구석에 새겨진 부조들에서 프랑스의 오랜 전통과 역사가 느껴진다.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곳은 인문사회과학 매장 건물이다. 건물로 들어서면 고풍스런 서고에는 각종 서적이 빼곡히 꽂혀 있다. 에스컬레이트도 오래된 것이라 두명이 같이 서기도 힘들 정도로 좁다. 대학가의 서점이라서 젊은 학생들이 많다. 간간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나 단정한 차림의 주부들이 철학이나 인문사회과학 코너에서 책을 뒤지고 있는 모습은 자못 인상적이다. 사상과 문화의 나라인 만큼 역시 프랑스인들의 철학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서점 내부의 곳곳에는 서가 위에 높이 꽂혀 있는 책을 뽑기 위해 마련된 조그마한 보조 의자들이 놓여 있는데, 사람들은 그 의자에 아무렇게나 걸터앉아 거리낌없이 책을 읽고 있다.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앉아 보다가 그냥 나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철저히 자유로운 프랑스 사회의 분위기가 서점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올라올 때는 에스컬레이트였지만 내려갈 때는 구석의 나무 계단밖에 없다. 계단도 좁기는 마찬가지다. 삐걱거리는 나무계단을

꾸불꾸불 돌아 내려가는 것도 나름대로 운치있는 일이다.

"내 책을 팔고 중고책을 산다"

특히 이 서점이 특이한 점은 중고책도 취급한다는 것이다. 어떤 책이건 가지고 가면 팔 수 있다. 서점측이 이렇게 구입한 중고도서는 오까지옹(occasion:중고라는 뜻)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 매장의 서가에 다시 꽂힌다.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책이라면 새책과 나란히 꽂히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된다. 고객들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새책과 헌책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중고책은 새책의 거의 반값이다. 책값이 워낙 비싼 프랑스인지라 이런 중고책을 취급하는 새책 가게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것도 대형서점에서 말이다. 물론 근처에도 중고책 전문서점이 구석구석에 있지만 , 이런 대형서점에서 중고책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또다른 느낌을 준다. 종로서적이나 교보문고 같은 대형서점에서 헌책을 사들여 새책과 함께 파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독자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매장 계산대 위에 붙어 있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인상적이다.

"내 책을 팔고 중고책을 사면 두 번 절약하는 셈"

선진국 사람들의 알뜰함이 한편으로는 부럽게 느껴진다. 브라더리(염가판매)라고 아예 따로 내놓은 매장에서는 완전 재고도서나 중고책 중에서도 허름한 책들만을 모아놓고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포켓판 소설의 경우 새책은 45프랑(6천원) 정도인데 여기에서는 단돈 6프랑(9백원)에 살 수 있다. 파리시의 1회용 전철, 버스 티켓이 8프랑하니 버스 토큰보다도 싼 가격이다. 자연히 돈없는 학생들은 신간코너보다는 염가판매 매장을 즐겨 찾게 된다. 혹 재수가 좋으면 염가매장의 쌓인 책 틈에서 좋은 책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렇듯 지베르 죈 서점은 대형서점이지만 딱딱하지 않고, 넉넉한 여유를 간직하고 있다. 또한 그곳은 지성과 낭만이 교차하고, 새책과 헌책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

미래를 아는 것과 진실하게 사는 것

김중태 지음《원효결서》를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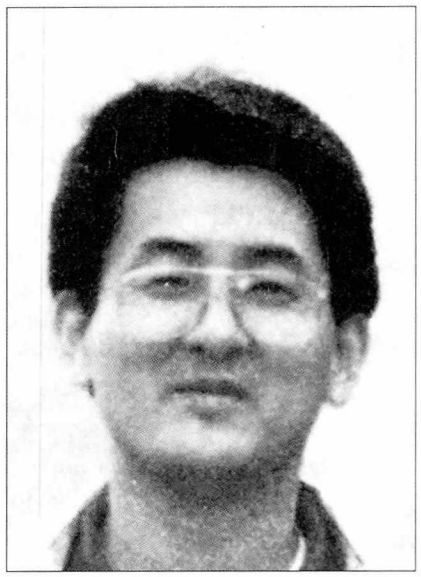
한필훈 · 도서출판 동녘 주간

세기가 바뀐다는 것은 인간에게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넘어 삶과 문명의 대변혁으로 다가오나 보다. 2000년이 되면 현재의 컴퓨터가 새로운 연도를 인식하지 못해 대혼란이 올 것이라는 이른바 '200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세기의 변동이 인류에게 만만치 않은 사건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0세기의 역사와 사상을 정리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려는 무게 있는 출판물들이 여러 나라에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기말적 출판의 한 갈래를 이루는 이른바 '예언서'들도 활기를 띠고 있다.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2000년을 전후하여 지구의 종말이나 대변혁이 온다는 예언들이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성서 요한계시록의 예언 등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들이다.

2000년이 아득하게 느껴지던 시절에 이런 예언들은 그저 호기심의 대상일 따름이었다. 그러나 20세기가 2년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엔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진다. 게다가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극에 달한 생태계 파괴는 지구의 종말에 대한 예언들을 한결 실감나게 하고 있다. 파괴될 대로 파괴된 지구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축을 뒤흔들어 그 위의 생물들을 모조리 내던져버리고 새 삶을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책은 한국식 예언서의 결정판으로 보인다. 이 예언서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천기누설인지 혹세무민인지는 앞으로 5년 안에 판명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 해도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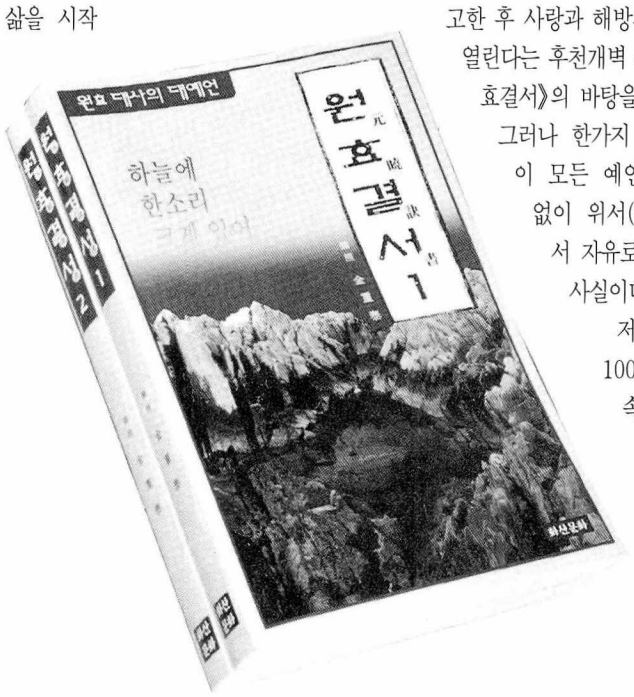


한필훈씨.

김중태의《원효결서》(전2권)는 한국식 예언서의 결정판으로 보인다. 신라시대의 고승 원효가 우리 민족과 인류의 운명을 예언해 문무왕의 수중릉 깊이 감추어 두었다는《원효결서》의 내용은, 유명한《정감록》과 조선시대 학자 남사고가 지었다는《격암유록》, 증산교 창시자 강증산의 '후천 개벽' 예언 등과 맥이 닿아 있다. 미륵불이 등장해 이상세계를 열어간다는 미륵사상, 투쟁과 죄악으로 얼룩진 선천세계가 종말을 고한 후 사랑과 해방의 후천세계가 열린다는 후천개벽 사상 등이《원효결서》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지적할 것은, 이 모든 예언서들이 예외없이 위서(僞書)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저자에 따르면 1000년 넘게 물속에 감추어져 있던 이 비결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박정희에 의해서라고 한다. 1967년 박정희는 극비리에 경주시장에게 대왕암의 뚜껑을 열어볼 것을 지시했고, 무덤 안에 들어 있던 이 글이 사진 촬영되었다. 박정희를 비롯해 이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는데, 저자는 그 가운데 한 사람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예언서를 입수했다고 한다. 그 후 10년 동안 해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끝에 이번에 책을 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원효결서》는 민족분단, 6·25 전쟁, 박정희 이후 집권자들의 등장과 말로 같은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절묘하게 예언하고 있고,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의 어느 시기에 지구의 대변혁인 후천개벽이 일어나 인류의 대부분이 멸망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후천개벽 이후 우리 민족은 세계사의 중심에 서게 되며, 그 영도자는 용띠해나 뱀띠해에 태어난 정도령이라는 것이다.

이 예언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천기누설인지 혹세무민인지는 길어도 앞으로 5년 안에 판명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루하루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아쉬울 것이 없으며, 아무리 신묘한 예언일지라도 단지 '참고 사항'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화산문화/A5신/352면 내외/각7500원